

“원력보살들 명맥...더 늦기전 행동을”

6월 5일 환경의 날...한국 불교환경운동 현주소

“지금 상태의 자연이 유지된다면 우리가 자연을 돌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1986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발표된 달라이라마의 환경선언문 중 일부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소비로 나타난 환경 문제는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담론 형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불교환경운동은 전성기를 맞았다. 새만금 반대를 위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의 삼보 일배와 지을스님의 목숨을 건 다섯 차례의 단식·도법스님의 생명평화 탁발순례는 우리 사회에 ‘환경’이라는 화두를 던져줬다. 특히 지을스님은 단식과 함께 도롱뇽이라는 자

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소송을 처음으로 펼쳐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정도희 에코붓다의 ‘빈그릇 운동’,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친환경 공양미 운동’ 등 대안적 실천 운동의 불을 지핀 것도 이 시기이다.

하지만 2013년 현재 한국 불교환경운동의 현주소는 ‘침체 일로’다. 수경 스님이라는 유명 활동가 스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불교계 대표 환경단체였던 불교환경연대는 그 동력을 완전히 소진했다. 조계종, 환경부가 받아 안은 ‘빈그릇 운동’은 대중의 관심과 뒷심을 받지 못하고 사라졌다. 2005년부터 준비한 ‘불교환경의제 21’은 아직도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이 같이 불교계 환경운동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선 전문가들은 △연이은 국책사업 반대 운동의 좌절에 대한 딜레마 △

전문 활동가 양성 노력 전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부재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유정길 에코붓다 공동대표는 “천성산, 4대강 등 국책 개발사업의 반대 운동들이 대부분

환경위, 윤리협, 지을스님 등 지속적 환경운동 펼쳐며 분투
고요한 소리, <생태위기-불교해법모색> 전문서 출간

불교환경운동 동력 소진 상태
무분별 개발 저지 위한 좌절
활동가 부재 등 원인 지목

분 실패로 끝나면서 일선 활동가들에게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회의를 들게 했다”며 “좌절 이후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패러다임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 역시 부재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환경운동은 몇몇 뜻 있는 원력보살들과 단체들의 활동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생명윤리협회가 원전 반대 운동, 밀양 고압 송전탑 반대 운동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을스님은 개발로 신음하는 내성전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에코붓다는 ‘쓰레기 제로 운동’과 ‘지렁이 퇴비 운동’을,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불교 생협과 ‘친환경 공양미 운동’을 통해 대안적 실천 운동을 장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찰생태연구소도 불교 수목원 건립과 <불교 경전 속 식물 도감> 편찬 사업에 역량을 집중 중이다.

최근에는 생태 위기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한 서적도 발간됐다. 초기불교 경전 번역 모임인 ‘고요한 소리’는 <생태 위기-그 해법에 대한 불교적 모색>이라는 제하의 전문서를 내놨다. 총 5개의 챕터로 이뤄진 이 책에는 클라스 셉텔 스웨덴 칼슈타드 대학 교수, 빠드마시리 드

실바 스리랑카 배라데니야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생태에 대한 불교적 이해, 불교적 환경윤리에 대한 입장을 전한다. **관련기사 22면**

그렇다면 불교환경운동의 부활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실천을 담보한 아래부터의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 대표 법승 스님은 “환경은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문제로 불교의 대사회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해야 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환경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은 “개발 반대 사업만으로는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환경위원회가 원전 반대운동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불교환경의제 21’과 같은 생활지침 개발도 서둘러 불교적 환경 실천 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월주 스님이 6월 7일 미얀마대사관에서 2013년 사따마 조디까다자(Saddhamma Jotikadhaja) 작위를 수훈했다. 월주 스님과 주한 미얀마대사관 우빈 흘라임 대사.

“세계일화 구현 이어나갈 터”

월주 스님, 미얀마 종교인 최고 작위 수훈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이 6월 7일 미얀마대사관에서 2013년 사따마 조디까다자(Saddhamma Jotikadhaja) 작위를 수훈했다. 미얀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이 작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는 분’이라는 뜻의 팔리어로 미얀마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가 수여하는 작위 중 가장 높다.

월주 스님은 “앞으로도 지구촌공생회는 ‘세계일화(世界一花)’의 구현을 위해 빈곤국가지원과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힘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한 미얀마대사관 우빈 흘라임 대사, 묘 단 패이 부대사, 빼얏 띠 다 쩌이등서기관이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월주 스님, 사무처장 화평 스님, 익산지회 덕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조계종 균중교구 현충원 참배
조계종 균중특별교구장 자광 스님과 육해공군 군승 10여명은 6월 5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군 복무 중 순직한 김순남 중령과 이대동신 대위의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김순남 중령은 해군법사로 재직하다 지병으로 순직했으며, 이대동신 대위는 전방 위문 중 차량 사고로 순직했다. 자광 스님은 이날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군포교 원력이 전해져 오는 것”이라며 추모했다. 한편 이날 대전 현충원에서도 대전지역 군승 1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순직한 군법사 5명의 묘역 참배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평화염원 실현하는 회담 되길”

조계종 등 불교계 남북대화 재개 환영 논평 발표

북한이 남북상호대화를 수용하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공평 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화해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6월 12일 남북한 당국간 대화 재개를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 이에 조계종,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 불교평화연대와 불교인권위원회 등 불교계에서도 각각 환영의 뜻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남북 당국자들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대승적 자세로 겨레의 평화염원을 실현하는 회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남북교류와 평화를 위한 항시적인 남북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

화대회 운영위원회는 남북한 당국자 간 대화 재개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이번 재안을 계기로 개혁과 개방에 박차를 가해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나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를 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불교평화연대와 불교인권위원회는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1972년에 성사시켰던 7·4남북공동선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과 같은 남북화해의 실천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입장을 표했다.

한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6월 13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향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조계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944호 INDEX

종합	2·3	시방세계 2013 사찰음식대축제	5	불국토 경주 남산을 오르다	12
조계종 청규 '가시화' 차별금지법제정 기자회견 포교원, 우수사제 지원 '라이프센터 연' 사실상 폐업 독일 사찰음식의 날				지상중계 불교평론 '의례 이대로 좋은가'	13
				새연재 악이 되는 사찰음식	21

2013 한마음아버지마당 교육생 모집

다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가족의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Tel. 031-411-6926~7
매주 월요일은 휴무

아버지로서 책임감은 감수욕 거저 가는데 아버지의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고단한 아버지란 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속 깊이 담아둔 고민과 상처, 꿈과 소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들과 남편, 아버지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주인, 가정의 중심으로서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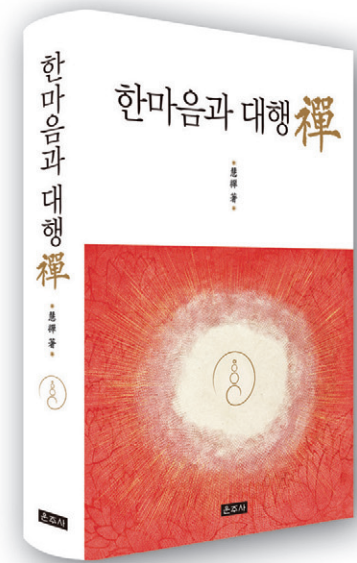
대행 큰스님 원적 1주기 기념 출판!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각고의 고행, 치열한 수행정진, 동체대비심의 무애행과 자애로운 보살행을 보여준 이 시대의 참된 대승보살!
독창적인 선사상과 수행 체계를 세우고, 참수행의 대중화, 보편화, 현대화를 이끈 시대의 큰 스승!

나라는 경계가 있다면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상대가 어떻게 행하여도 모두가 주인공 나됨일 뿐이다.
모두가 주인공!

慧禪 저/신국판양장/624쪽/28,000원



한마음과 대행禪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하는 한마음인 것이다